

고은 불교대하소설



조 선의 부설거사 역시 처음에는 승려였다가 한 남자와 만나 부부가 되어 서로 높은 경지를 터득하는 수행으로 다하던 것이다.

인담과 우녀는 부부가 아닌 부부이며 오누이가 아닌 오누이이고 부녀 사이가 아닌 부녀 사이인지 모르며 서로 걸림이 없는 두 사람의 삶에서 세월이 가는 줄도 모르고 달이 뜨고 해가 지는 줄도 모르도록 살아 왔다.

심심하기로 말하면 심심하기 짝이 없었고 부부의 금실이어서 서로 말을 주고 받지 않을 때도 그들에게는 두 악기가 어우러진 음악이었다.

그러다가 소식행자가 건너 왔고 이반에

하 관속들의 뿌라 뽑을 수 없는 부패로 인한 백성들의 어려움으로부터 동떨어진 사실 때문에 이 삼이 세상의 모든 것을 꽃피우는 일은 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들만의 삶 이외에는 아무런 힘도 없었다. 인담과 우녀의 정신은 그들 자신의 것일 따름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이루어 온 고독이기도 하였다. 아니 그 고독 없이는 이 삼의 의미는 다른 것으로는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어느날 이곳은 세상의 일로 그들만의 보석과도 같은 고독이 깨어지는 것 같았다. 무욕도 부족 기쁨에 몹시 부패한 시체가 떠내려 와 있는 사실 때문이었다. 시체는 퍼렇게 되어 있고 목은 없어졌다. 팔과 복부의 한 구석은 고가들의 입질



천상의 업을 마치고 승냥이가 된 만화는 독물을 먹은 토끼를 잡아먹고 죽어 양자강 하류 고아출신 소녀뱃속에 들어갔다

는 다시 대해가 한 식구로 보태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자 인담은 그동안 내버려두어오래인 화두를 다시 잡아 선정 시간을 지키기 시작했고 우녀도 화두 없는 목조의 선에 들어갔다.

다만 인담의 염불선이 낭랑하게 소리를 내던 흥겨움은 일단 멈추어서 이 삼의 좌선 시간은 파도소리 속의 고요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들 네 사람은 죽 할 말만 하였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었는데 인담과 우녀의 하루하루가 그대로 대

이 있었던 것처럼 들려져 있었다. 인담이 긴장 하였다.

"물림 없는 육자에 퍼져 있는 괴질 환자의 시체인데... 너무 오래 되어서 고기들 조차 건드리다 그만 둔 시체인데..."

대해가 나베에다 그 시체를 비켜가면 뒤 섬으로부터 멀리 나아가 버리자는 것을 인담이 삼에 끌어 올려 화장하는 쪽으로 바꾸었다.

그 일은 인담과 대해가 맡았고 우녀와 소식은 거기에 오지 않도록 하였다. 그동안 인담이 깨어둔 장작 더미의 질

을 잘 하는구려."

"그래 문수보살 노릇이라 아녀네 밤에 드나들니?"

"어허 내가 영험한 평공이 되고 말았구려."

"인담은 인담이고 평공이는 평공이 아 닌니?"

"오늘은 좀 어떠신지?"

게 보내 온 것이니 들었다.

만화는 천상계 도솔궁 외원(外院)에 있었으나 천상계의 수명이 다하자 아주 무서운 고통으로 그곳에서 살았던 마지막 보상으로 치뤄내야 하였다.

그는 그 고통 가운데서 깊이 후회하였다. 무엇 때문에 이런 천상계에 와서 그 마지막에는 피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이런 고통을 끝으로 하고 떠날 때에는 도무지 천상계의 복이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런 후회 가운데서도 그 청정한 허공의 천상계를 날아다니는 비천(飛天) 낙천(樂天)의 유정(有情)으로서 하늘 속의 음악을 즐기고 하늘 속의 향기를 즐기던 일들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이미 한번 입으면 언제까지나 더러워지지 않는 옷이 더러워졌을 때 만화는 질겁 하였다. 그의 머리 위에 늘 꽃혀 있던 꽃이 사들이 버려서 그 꽃을 뽑아려중에 던져 버렸다. 그런 다음 그 자신의 몸에서 더러운 땀새 썩는 땀새가 나기 시작하였다. 거드름이 많이 멈추지 않고 이제까지 그토록 즐겨왔던 천상계가 몹시 싫어지는 것이었다.

이런 다섯가지 쇠운(衰運)을 맞은 뒤로 어떤 치료도 불가능한 고통 가운데서 비명을 질러대야하는 천상계의 마지막이란 천상계도 결코 중생계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할 뿐이었다.

그런 만화가 천상계의 업을 다 마친 뒤 몇천대의 윤회를 지냈다. 지금 그가 살고 있는 것은 어느 광활한 별판의 승냥이로 서였다.

달이 기울어 버린 한밤중에 그 승냥이의 울음 소리는 혼자 처절하였다. 배가 고팠다. 그래서 다친 다리를 이끌고 사냥감

꿈속의 그들 ①

다 시 무욕도는 시간을 지키는 생물이 시작되었다. 제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고 제 시간이 되면 순한 짐승처럼 잠자리에 누웠다.

인담과 우녀 뿐이었을 때는 그런 시간에 굳이 엄매하지 않고 각자의 자연스러운 뜻에 따라 좌선을 하게되면 하고 한바퀴 섬의 여기저기를 돌거나 오랫동안 수련선의 돌날 파도를 바라보기도 하였다. 그들은 서로의 일에 아무런 간섭이나 충고 따위도 전혀 없었다.

굳이 남녀라는 차별에도 머물지 않아서 우녀가 발일을 한 뒤 허벅다리까지 다 내놓을 때 물로 씻는 것도 인담이 있거나 말거나 개의치 않았다. 그런 점은 인담쪽도 마찬가지여서 장작을 쪼거나 나베 남은 모시리를 수선하는 일을 할 때에도 웃음을 베풀어 보아도 전혀 저어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2조 해가(蟹可) 시대의 향

거사(向居士) 부부처럼 살았던 것일까. 숲속에서 풀뿌리와 나뭇잎을 따먹고 사냥감으로 목을 축이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선정에 드는 일을 하다가 해가와의 서할 문답으로 인가를 받았던 향거사였던 것이다.

그런 향거사 뒤로는 방거사(龐居士)가 있지 않았던가. 저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유마거사와 방거사 그리고 조선 땅의 부설거사야말로 굳이 대웅전이 필요 없는 세속 3국의 큰 공명이 아니었던가.

방거사는 그의 말 영조와 함께 장작 그 의 스승인 석두회현이나 마조도일과 도를 겨루어 그들의 놀라운 재자가 되기도 했지만 풀 길고 장작 쪼는 일 자체가 바로 신통(神通)의 세계였던 것이다.

말이 먼저 죽자 "내 말이 뛰어나구나!" 라고 찬탄한 뒤 7일만에 아버지는 그의 천자인 한 자사(寒使)가 문법을 온 겁에 그 사람의 무릎을 베고 죽었다.

"은갖 있음을 비물자언정 없음을 채우려하지 말게나..."라는 한 마디를 남긴 채

해와 소식에게도 계율이 되어 그것을 지켜가는 하루하루가 되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선이나 그 밖의 수행 따위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살아 온 대해가 빠르게 이 삼의 생활에 그 자신을 맞추어 가는 일이 눈에 띄었다.

소식도 우녀를 모방하는 일에 충실하고 있었다. 인담이 그런 두 사람을 두고 한 마디 꺼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보다 이 도량에서 더 오래된 바위인걸..."

이렇게 무욕도량은 다시 규범을 일으켜 수행의 삼이 될 수 있었다. 하루하루는 사람의 기쁨이나 슬픔 따위가 생길 까닭이 없는 어떤 진공상태만이 채워져 누가 걸어 가는 것조차도 실체이기보다 그림자 같았다. 마치 옛날의 방거사가 이 세상 이런 다 그림자이고 메아리일 뿐이라고 말한 것을 실증하거러도 하는 것처럼.

이런 삼은 그러나 육자에 행하는 도적과 역병으로 인한 어지러움 그리고 상

반 이상을 세로 가로 붉은 뒤 그 위에 천으로 돌돌 말은 시체를 올려 놓았다.

화장 뒤 뼈 몇개는 흙을 파 광토로 묻어 버렸다.

그런뒤 우녀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였다. 대해와 소식행자가 아주 조심스럽게 수군였다.

"그 승장이 가져 온 병에 걸리신 것은 아닌지."

"걱정이에요. 이런 섬에서 합사리 약을 지어 줄 수도 없고..."

그러나 장작 인담은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았다. 하루에 한두번 우녀가 누운 방에 들어가 물 사이의 허물없는 말이나 주고 받음 뿐이었다. 우녀도 그 자신의 병에 조금도 초조하거나 불안해 하거나 하지 않고 마치 어머니가 갖 깨어난 병아리를 품고 있는 것처럼 병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문수보살의 문법 인사에 중생이 없으므로 나도 앓는다고 말한 유마거사 노릇

"내일은 좀 낫겠지요."

렇게 병을 건디고 있는 우녀는 끝내 먹은 것을 다 토해 내어 신물이 나는 지경에서 내내 눈을 감고 있게 되었다. 혼수상태이기도 하고 혼수상태에서 깨어나기도 하였다.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였다.

밤에는 별뚝별이 많이 어둡 속을 진한 흰 빛으로 굽고 거며 사라지는데 우녀의 밤 역시 그가 살고 있는 세상 밖의 여러 세상을 진하게 꿈꾸고 있었다.

그는 마치 무욕도를 떠난 지난 날의 도반들을 하나하나 점검이라도 하는 것처럼 꿈속에서 볼 수 있었다.

만화 그리고 곧바로 남두 불이 무전 관련 수인 수월들이 차례로 우녀의 꿈속에서 나타났다. 이를테면 그의 병은 육지에서 떠나려 온 가난한 시체로부터 옮겨진 병이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수행하다가 떠난 사람들의 생명들이 그를 통해서 각각의 소재를 알리기 위한 병을 우녀에

를 찾아 어디론가 떠나야 하였다.

그러기전의 울음 소리를 우녀가 꿈속에서 듣고 그 만화에겐 한없는 연민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나머지 우녀는 꿈속에서 그런 승냥이 만화에겐 한 마리 토끼가 되어 잡아 먹히는 것이었다.

꿈 속은 이토록 또 하나의 중생과 보살들의 세계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배가 고프 승냥이가 내달려가 잡아먹은 토끼는 승냥이 뱃속에 독을 가진 풀을 먹은 채였으므로 승냥이는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하였다.

우녀는 만화가 승냥이로부터 다른 중생으로 바뀌 태어나기 직전의 윤회를 꿈속에서 마치 현실 그 자체인 듯이 분명하게 목격하였다. 승냥이는 죽었다. 그런 뒤 어 느만큼 시간이 흘러가자 이번에는 중국 양자강 하류의 어떤 농부의 집에 새로 들어 온 고아출신의 소녀 뱃속에 들어갔다.

그림 · 조항숙

병석의 우녀는 지난날의 도반들을 점검하듯

꿈속에서 여러 세상의 그들을 차례로...

현대불교

생애활동

본 권은 독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잡화
● 불교관련용품 ● 불교관련 소식
● 지체홍보 ● 안내
● 각종행사 ● 신성품소재물

문의 (02)737-8881 (광고국) 팩스 (02)737-0697

절터 최적지

장소: 경남 하동군 황천면(하동 진주 사이) 지리산 줄기, 양질의 지하수 도로, 토목공사 완료

평수: 11,460평 (경장 10,000원)

연락처: (0346) 594-4974

포교당 안내

장소: 강남성동역 근방	장소: 장안동
3층 25평 시설원비	3층 50평 시설원비
보증금 2천만원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8만원	월세 48만원
시설비 절감	시설비 절감

연락처: 246-6858, 011-574-8879

사찰부지 및 실버타운 최적지

- ◆ 서울근교 (잠실역에서 40분거리)
- ◆ 정남향, 자연경관 수려 (저수지 근접)
- ◆ 920평~2500坪 (평당 10만원)
- ◆ 형식 차량대기 현장답사

연락처 TEL. 420-5474-5 B.B 012-272-0025 안태진

삼보와 함께 할 식구를 초빙합니다

- 노년 부친스님 (홍릉한 기도스님회고 대우함)
- 종무소 사무장급 경리사 ○명 (컴퓨터 조작 가능자)
- 공양주 보살님 ○명

접수기간: 1996년 8. 30 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1동 487번지

대한불교조계종 회계사

전화: 902-2663 903-3361 FAX: 990-1885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 (화재예방용)
- 木材할열방지제 (갈라짐 방지)
- 木材방충·방부제
- 木材탈취제 (청변균제거)

서울특별시 중구 수포동 B/D (을지로 2가)

전화: (02)266-2629 팩스: (02)266-2679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척추교정·지압 시술 및 개인지도 (CHIROPRACTIC)

· 체통 및 척추를 ▶ 척추 및 관절 교정

· 목·척추디스크, 신경통

· 관절염·중풍·말초신경염

· 미관·관리·사골염

· 운동요법, 안경 처방

· 시력도·명안경

장소: 강남구 신사동 543-7306

기도·회향 보시 방법지도 지정경승승법

참치: 업정소멸과 자녀교육에 도움 기록법, 건강문제

꿈바위사회교육문제연구소

종로구 인사동 179-2 (02)739-5007-8

보리수

취급 | 각종수입합, 염주 | 일체 품목 불교약세사리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 778-5345, 팩스: 777-1917

탁자, 달집, 범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품목

- 한민족민속·대중의 문화
- 한민족민속·대중의 문화
- 한민족민속·대중의 문화
- 한민족민속·대중의 문화
- 한민족민속·대중의 문화
- 한민족민속·대중의 문화

대진(전승)공예서

전화: 011-282-8009

학생모집

- ◆ 포교교육과... 동양종교, 종교음악
- ◆ 유아교육과... 유아놀이, 아동미술
- ◆ 불부 행정... 상담실무, 상담행정

1. 수료후 수료증 수여 및 자격증(포교사, 법사, 유아놀이사, 상담사) 취득가능

2. 소형 버스 통학 가능

3. 중부 관에서 원2회 강의 (교육청인가 포함)

TEL. 02)931-6075-6

만대교화대학원

탈종공고

대한불교 법화종

사찰명: 감로사

소재지: 경남 창녕군 고암면 간상리 1-1

주 지: 조무래 (법명)영봉

신도회장: 성대경

상기 사찰은 귀종단의 중헌 중법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 공고함

1996년 8월 5일

승복점

장소: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평수 15평

보증금 2500만원

월세 12만원

* 승복·한복 겸하여 운영중

연락처: (0331)254-1263, 015-125-1263

神祕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궁합, 학생적성

☎ 738-2045, 2046

현대불교신문사

韓國民俗哲學研究所

산사에서 기도하실 스님

- 강원도산사, 경관수려하고 시설 수용 넉넉함
- 조용히 기도하고자 하는 스님이나, 신심있는 불자들이 오시면 잘 위로해 드립니다
- 초심 수행자도 환영

연락처 ☎ 0365-461-7294, 0346-592-7315